

박근혜, 탄핵 13개월만에 이번주 선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점을 남긴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탄핵 13개월만인 오는 6일 법의 심판을 받는다.

최순실(62)씨 등 국정농단 주역들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 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이후 한 달여 뒤인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약 일 년간 주 4회 마라톤 재판을 진행한 끝에 재판부는 기소 354일 만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리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을 강요하고 삼성에 정유라(22)씨 승마지원 강요, 롯데·SK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와 이에 미온적이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정권과 맞지 않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이유로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하고 정호성(49)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측근들은 대부분 1심 및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이 때문에 이들과 공범 관계에 있는 박 전 대통령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13가지 공통 혐의를 받아 가장 큰 공모 관계를 이루는 최씨는 지난 2월13일 1심 선고에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재단 후원금을 강요하고 삼성이 정씨 승마지원을 하도록 했다고 봤다. 또 포스코·그랜드코리아 레저에 최씨가 사실상 운영하던 더블유K와 스포츠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강요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이 밖의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공범들의 유죄 판결이 나온 상태다.

미르·K 재단 후원 강요 등 18개 혐의 공범 대부분 유죄...중형 불가피 전망 최순실, 4일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모해 블랙리스트 업무를 강요하고 이에 소극적인 문체부 간부들의 인사 불이익도 줬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 47개를 제공한 정호성(49)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문건을 유출했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 선고가 열리기 직전인 6일 오전 10시 조원동

(62)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CJ 인사 강요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혐의 18개 중 15개에 대해 공범 사건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은 중형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위나 책임 등을 고려하면 30년 지기 최씨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여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최씨의 구형량보다 5년 많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한편 최씨의 항소심은 이번 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식)는 4일 오전 10시 최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직권남용 권력행사 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이유를 들은 뒤 향후 재판 진행 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식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인 만큼 최씨는 법정에서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뉴스사



성큼 다가온 여름 강원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20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를 보인 1일 오후 홍천군 마곡리 홍천강에서 수상보트 마니아들이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올들어 안전신고 4만7천건...5월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

정부가 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를 봄 나들이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안전신고 대상은 봄철 축제장내 위험요인, 등산로 파손, 낙석, 잘못된 길 안내 표지, 관행적인 불법 취사 및 소각 행위, 교통시설 파손 등 일상생활의 안전 위험요소들이다.

안전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행안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한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등으로 알려준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복잡한 본인확인 절차 없이 위험요인 사진과 위치 지정만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14년 12월 개통된 이래 안전신고 건수는 2015년 7만4123건, 2016년 15만2768건, 2017년 22만3945건, 올해 3월25일까지 4만7350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만445건(28.7%)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만 7991건(9.6%), 대구 3만7785건(7.5%), 부산 3만6470건(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뉴스사

중 우주정거장 '톈궁 1호' 추락 임박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중국의 우주정거장 '톈궁(天宮) 1호'의 추락이 임박했다.

유럽우주국(ESA)은 1일(UTC 기준) 블로그를 통해 이날 오후 11시25분(한국시간 2일 오전 8시 25분)께 톈궁 1호가 대기권에 재진입할 것으로 추정했다.

ESA는 톈궁 1호가 이동하고 있는 상부 대기 밀도가 예상보다 높지 않아 천천히 하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1일 오후부터 2일 오전 사이에 대기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변동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홍콩 시우스카이 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유인우주비행공정관 공실(CMSA)은 3월31일 낮 12시 대기권 밖 179km에 있었던 톈궁 1호가 1일 오전 8시 현재 167.7km 거리까지 근접했다고 밝혔다.

연구기관들마다 추정치에 차이가 있지만 톈궁 1호가 1일 오후에서 2일 사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중론이다.

미국 항공우주분야 연구기관 에어로스페이스 코퍼레이션(AC)은 1일 오후 8시30분(한국 시간 2일 오전 5시30분)을 전후해(±8시간) 톈궁 1호가 대기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무게가 8.5에 달하는 톈궁 1호의 지상 추락 지점은 예측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다.

AC는 톈궁의 잔해가 미시건주를 포함해 미국 전역에 톈궁의 잔해가 추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가 지난 30일에는 태평양으로 추락 예측 지점을 변경했다.

현재 궤도를 고려하면 톈궁 1호는 북위 43도~남위 43도 사이의 지역에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중국, 아프리카, 호주는 물론 한반도 전역도 이 범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지표면 추락의 위험이 매우 큰 것은 아니라고 미국 CBS 방송은 전했다.

미국 자연사박물관의 천체물리학 큐레이터 머디카이-마크 맥 로는 CBS에 "스콧스 정도의 크기인 톈궁 1호는 대부분 대기 중에서 타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2차 대전 중 침몰한 영국 여객선 인양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공습에 침몰한 영국 여객선이 75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BBC, 스리랑카 현지 언론 콜롬보페이지는 31일 스리랑카 해군 잠수부들이 1942년 일본의 공습에 침몰한 SS 사기인호의 선체를 인양했다고 보도했다.

스리랑카 해군사령부는 동부에 있는 트링코말리 항구의 정박시설 확장 공사를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항구 앞바다에 가라앉아 있던 SS 사기인호를 인양하는 작업을 5개월 전부터 벌여 왔다. 지난 3월 22일 선체 일부가 처음 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31일에는 선체 전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해군사령부는 성명에서 지난해 2017년 9월11일부터 높이 10.7m, 길이 138m의 함정의 인양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군 소속 잠수부 98명으로 구성된 팀은 선체가 뜰 수 있는 부력을 만들려고 한 번을 밀폐한 뒤 선체에서 바닷물을 빼냈다.

1924년 12월24일 진수된 이 배는 영국과 미얀마(당시 버마)를 오가는 여객선으로 운영되다가 1942년 4월9일 트링코말리 항구 앞바다에서 일본 폭격기의 폭격을 맞아 침몰했다.

인도서 호텔붕괴로 9명 사망...다수 파묻혀

인도 중부의 마디아 프라데시 주 남서부 인도르 시내에서 3월 31일 밤(현지시간) 4층짜리호텔 건물이 무너져 9명이 사망했다고 인도의 아시아인 에이지 신문이 보도했다.

이 날 사고 현장에서는 10명이 구조되어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파괴된 잔해 아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갇혀있을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사망자들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말린 가우르 인도르시장은 "무너진 호텔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구조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은 몇 명이 나간 것인지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현장에는 소방대원들과 주 재난방지본부 신속 대응팀 인력이 파견되어 구조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뉴스사

모두,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건강기 건강검진
- 영양이 건강검진
- 임 검진
- 구강 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 vs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42%p 감소
-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 vs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18%p 감소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